

나의 논쟁시대(論爭時代) —논란(論難)받은 몇 점의 추억

오해(誤解)나 왜곡(歪曲)은 서로 피하자

「나의 논쟁시대」라는 제목을 받았으나, 나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수차 논란을 받은 일은 있을 뿐 아직 한 번도 누구와 직접으로 논쟁한 일은 없다. 그러니, 논란 받은 것 중에서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한두 가지만 적어 문책을 면하는 수밖에 없겠다.

1935년에 《시원(詩苑)》 8월호에 〈시와 사상〉이라는 글을 실었다가, 지금 그 쓰명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나 이병각씨 외 7,8인에게서 논란을 받은 일이 있다.

그 글의 논지는 대략 이러한 것이었다.

사상은 이성의 소산이요, 시는 상상력의 소산이다. 그리하여 사상은 어떠한 단안을 내리고, 또는 그 단안을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의식시켜 그것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나, 시는 외적 목적을 의식케 하거나 그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여 그 감동과 기쁨에서 깎 때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.

그러므로 한 시 속에 담긴 사상의 지적 내용 여하로 곧 그 시의 가치

를 결정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. 그런데 이 잘못은 앞에서 말한 사상의 세계와 시의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기인하는 것이나, 또 하나 시의 형식과 내용을 구별하여 놓고 내용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여, 사상의 지적 내용을 그 시의 내용으로서 오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시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데 그 원인이 있다.

그러나 시의 형식과 내용은 단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며, 보통 우리가 시의 형식과 내용의 대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실 형식과 내용의 불가분의 융합으로서의 시 전체와 시의 외부에 있는 소재 즉 주제와의 대립이다. 그런데 우리가 한 시 속에서 추출한 사상의 지적내용은 시의 외부에 있는 주제요, 시 그것도 시의 내용도 아니다. 그러므로 소재인 사상의 지적 내용과 시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.

그렇다고 우리는 소재의 예술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, 사상의 시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. 그것은 천박한 사상을 주제로 할 때보다도 위대한 사상을 주제로 할 때 더 위대한 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그것이 위대한 시가 되려면 먼저 그것이 시인의 상상 속에 완전히 융해되며, 감정화하고, 성격 있는 정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. 따라서 시는 언제나 그 속에 포함된 사상의 지적 내용 여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, 그것이 시인의 상상력 속에 얼마만큼 융해되었는가,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이 우리를 얼마만한 정도로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였는가 하는 그 정도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.

나의 이런 논언에 대한 그 분들의 논란은 「너는 시에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식주의자요, 시에서 사상을 박탈하여 버리려는 예술지상주의다」 하는 점에 있었다. 그러나 이런 논란에 대한 나의 논박은 스

스로 나의 그 글 속에 있었으니 나는 침묵으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.

다음으로 또 하나 <비평문학의 확립을 위하여>라는 논책 중에서 「문예비평은 한 작품이 얼마만한 선전과 계몽의 가치를 가졌다거나, 어떠한 사상과 현실과 의도를 가졌다거나를 측정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, 그 작품에 나타난 사상과 현실이 얼마만한 정도에 있어서 작가의 상상력과 감정 속에 융해되었으며,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려던 그 작자의 의도가 얼마만한 정도에 있어서 실현되었는가, 그리고 그 결과 그 작품이 얼마만한 정도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였는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」라고 하였다가 임화씨에게 <문예논단의 분야와 경향>이라는 논문 중에서 그것은 비평을 형식적인 측면에만 한정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받은 일이 있다. 그러나 나는 결코 비평을 형식적인 측면에만 한정하려는 사람은 아니다. 이는 <시와 사상> 속에서 말한 내용과 형식에 대한 나의 이론을 듣지 않더라도 임화씨가 인용한 그 구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볼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화씨의 나의 언설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나는 씨의 그 오해하고 왜곡한 점을 어느 기회에 본지상에서 지적한 일이 있다. 이미 한정된 지면이 다 하였기에 이만 들기로 한다.

(《조선일보》, 1938. 2. 4)